

2018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를 마치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한국고분자학회의 일을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하는 글을 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마치 시험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하면 시험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마음입니다.

김철희 회장님으로부터 전무이사 제의를 받고 많이 부족하여 몇 번 사양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면에서 잘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면서 지방에 근무하는 있는 저를 지목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부터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분자학회의 여러 회원님들, 특히 자문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중 한 분께서 열심히 연구하듯 그 시간 중 일부를 조금만 학회에 신경 써보라는 격려의 말씀은 '할 수 있겠 다'고 마음을 다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총회 때 자문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학회 내부의 일들을 빨리 파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수고가 많다고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학회의 큰 어른들이신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역대 회장단과 전무님들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두신 운영체제와 운영이사 분들의 많은 노고가 학회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춘·추계 학술발표 및 그 외 다양한 학회 사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춘계 학회에서 "LOTTE CHEMIC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ymer Synthesis, "DOOS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lymer Structures and Properties 등의 국제화 세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 주신 롯데케미칼과 두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계학회에서는 분자전자 부문위원회와 의료 용 부문위원회에서 각각 국제화 세션을 운영하였고, 많은 회원들의 활발한 토의와 연구 발표로 학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롯데부여리 조트에서 개최된 고분자포럼 행사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 신기술 강좌, 고분자 아카데미, 고분자 기기분석강좌도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춘·추계 학회 및 각 사업 진행 시마다 일사분란하게 운영이사님들이 총회장, 발표회장, 포스터장, 행사 장 등을 책임지고 맡아 주신 운영이사님들 덕분에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행사에 다양한 광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사 및 연구소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행사에 참여해주신 연 사님,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고분자학회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추계 국제화 세션을 통한 국제화, 기존의 한 국·일본, 한국-대만 교류회 뿐 만 아니라 한국-베트남, 한국-호주 간의 교류에 관련한 MOU 체결을 하여 고분자학회의 국제화와 앞으로 우수 대학 원생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회의 산업체 회원 확보와 사업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많은 자문을 해주신 김성철 교수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체 회원 풀을 마련하였고 학술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업체 세션을 준비하여 산업체 회원과 학회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준비해 주신 학술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분자과학과 기술지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가 e-book으로 전 환되었으며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주재하신 두 편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보조금 사업에도 지원하여 여성 과학자 세션을 준비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젊은 여성과학자들의 우수한 연구 성 과 소개 및 여성 과학자 멘토 분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사업 옹호부터 진행까지 많은 여성 회원님들의 노고가 있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각 지부의 총무님들을 운영이사 분들로 모셔서 지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경비 처리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부장님과 총무님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지부의 결산보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중견 회원들을 위해 중견학술상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KOPTRI)과의 협약을 통해 KOPTRI 고분자학술상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세진시 아이(TCI)가 학회 공식 후원사가 되어 학회 후원금과 더불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학생회원과 그 학생이 속한 연구실에 수여하는 새로운 TCI 우 수고분자연구상을 제정하였으며 로켓에서도 우수논문발표상 상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사들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우수논문 을 발표하는 분위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세진시아이(TCI) 사장님,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사장님, 로켓 사장님과 관 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 년 동안 한 일을 적다보니 오히려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일일이 성함을 다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운영 이사회는 물론 학술위, 편집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학회 운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는 모든 회원 한분 한분이 모여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했기에 알찬 학술대회 행사는 물론이고 회원님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커피와 빵 제공, 학술대회전용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고분자학회 석학들의 명강의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개설과 고분자학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였으며 회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학회에 바랍니다'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였지만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과 행사의 많은 아 이디어와 실행은 꼼꼼하신 회장님의 진두 지휘와 학회 사무국의 선생 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니 한국 고분자학회의 전무이사를 맡아 일 년을 보낸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 들, 자문위원님, 회장님과 회장단,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 지부장님, 후원사 관계자 분, 무엇보다도 우리 고분 자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 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김윤호>

